다발적 치아 손실 환자의 임플란트-교정 통합 치료 증례

서울탑치과
이승창

다발성 치아 손실 환자의 경우 보철, 교정, 보존의 통합적 치료가 필수적이며,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은 교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치료 중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다. 본 증례는 광범위한 치아 결손으로 내원한 38세 여성 환자에 대한 통합 치료 과정을 보고한다. 초진 시 다수의 구치(#14, 15, 36, 37, 47) 소실로 인한 교합 불안정과 하악의 우측 편위, 상악 정중선의 3mm 우측 편위가 확인되었다. 전치부에는 #11~21 PFM 브릿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, #22는 근관 치료 후 근심부 우식 및 치근단 병소가, #12는 변색이 관찰되었다. 하악 중절치 2개는 선천적으로 결손되었고, #16 및 #26 치아는 심한 정출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상태였다.

치료 계획은 하악 구치부(#36, #37, #47)에 임플란트를 조기 식립하고, 임시 보철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병행하여 수직고경(vertical dimension)의 회복과 저작기능의 초기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다. 교정 과정 중 #22 치아는 의도적으로 정출시켜 근심부 우식을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다. 조기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교정용 고정원으로 활용되어 교정력을 안정화시키고, 턱관절의 중심위(CR)를 조기에 회복하는 데 기여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현저히 감소시켰다.

본 증례는 임플란트의 조기 식립이 교정 고정원 확보, 수직고경 회복, 치료 효율성 증대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며, 의도적 정출을 통한 #22 치아의 보존은 발치 없이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보철, 교정, 보존의 다학제적 접근은 복잡한 치아 손실 환자에서 기능적·심미적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.